

■ 보건복지부 분석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

# 제주 1115건 신고... 전국의 2.1% 차지

신고자는 아동보호기관·부모·아동 본인·학교 순  
아동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을 전국서 네 번째

지난해 제주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를 통해 신고되는 사례가 많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 이후 매년 아동학대 현황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전국 총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늘었다.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그중 3만7605건(지난해 대비 21.7%↑)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 사례 중 83.7%를 차지했다. 재학대 사례는 5571건으로 2020년에 비해 2.8%p 증가한 14.7%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접수와 아동

학대 판단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부의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코로나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 등을 꼽았다.

시도별로 분류된 통계에서 제주는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17개 시도 전체의 2.1%인 총 1115건으로 파악됐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464건으로 신고자별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299건, 초·중·고교 직원 80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8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건 등이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유형 651건 중에서는 부모 215건, 아동 본인 182건, 이웃·친구 74건, 낯선 사람 37건, 형제·자매 20건 등으로 신고된 사례가 많았다.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제주가 6.47%로 전국 평균(5.02%)을 웃돌았다. 울산(14.68%), 전라남도(7.71%), 전라북도(7.6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이 증가하면서 발견율도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2020년 8.4%)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사망사례 피해아동은 1명이었다. 전선화기자



해수욕장 운영 마지막 날인 31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올여름 130만명 해수욕장 찾았다

어제 폐장... 소방·해경, 물놀이객 안전 '특독'

무더위를 식혀 준 여름 피서의 메카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2달 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올여름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에는 총 129만7190명이 방문해 제주 바다를 즐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치·금능·

김녕·함덕 등 제주시 지역 8개 해수욕장에 101만6450명, 중문색달·표선 등 서귀포시 지역 4개 해수욕장에 28만740명의 이용객 물렸다.

이는 2020년 101만5881명, 2021년 99만3064명의 방문객과 비교해서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방문객 191만4579명에 비해

서는 67.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이었지만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두기, 화장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됐고 인과가 물리는 지정 해수욕장을 피해 해안이나 항·포구의 개별 물놀이객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각종 수난사고 등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 "화살 맞은 개 목격자 찾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70cm 길이의 화살에 맞은 개와 관련,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3살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이 개는 몸에 화살을 관통당한 채 26일 오전 8시29분쯤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구조됐다.

이후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 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전화 064-760-1268, 064-760-1325 또는 국번 없이 112. 김도영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의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조 244건, 구급 67건, 현장 처치 2134건, 안전조치 2571건 등의 소방활동이 진행됐다. 또 해수욕장에서 미아 찾기 활동도 19건 실시됐다.

같은 기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연안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해수욕장에서는 해경에 의해 5명의 물놀이객이 구조됐으며, 항·포구에서는 8명이 구조됐다. 또 갯바위에서는 8명이 구조됐다. 김도영기자

## 벌초 후 마신 막걸리, 결과는...

경찰 지난 주말 음주단속 총 18명 중 7명 낮에 적발  
"오는 3~4일 또 단속 계획"

벌초가 집중된 지난 주말 동안 1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18명(면허취소 9명·면허정지 9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18명의 운전자 중 벌초가 이뤄진 낮 시간대에 적발된 경우는 총 7명(면허취소 1명·면허정지 6명)이었다.

앞서 제주경찰은 벌초를 끝낸 뒤 음주(酒)를 마시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단속 사례를 보면 27일 오후 1시

45분쯤 제주시 해안동 한 도로에서 벌초를 끝내고 막걸리 두 잔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단속됐다.

다음날인 28일 오전 6시42분쯤에는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벌초에 나섰던 2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 한 잔을 마신 50대 운전자 2명이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0.036%로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추석 전 벌초가 마지막으 이루어지는 3일과 4일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8월 한달 코로나 확진 5만명 넘었다

월 기준 지난 4월 이후 1달 만... 격리환자 7685명

8월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하루 동안 14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795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177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달 들어 누적 확진자 수가 5만900명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에선 지난 4월 5만4819명이 확진된 이후 5월 1만263명, 6월 4049명으로 감소세를 보인 이후 7월 3만1629명이 확진되며 확산세가

이어졌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 89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82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주 대비 4298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 별로는 0~9세(10.5%), 10~19세(15.2%), 20~29세(12.1%), 30~39세(12.8%), 40~49세(14.9%), 50~59세(13.9%), 60~69세(10.7%), 70~79세(6.1%), 80세 이상(3.8%)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7685명이며 이중 766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강다혜기자

## 고민수 전 제주시장 별세

고민수 민선 초대 제주시장이 31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95년 7월~1998년 6월 제19대 제주시장을 역임했다. 제주도 지역경제국장, 북제주군수, 제주시 부시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등



로 공직에 몸담았고 대한노인회 제주지회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도협의회장, 고씨종문회총본부회장, 제민일보 대표이사·사장, 탐라종묘문화재단 이사장도 지냈다.

유족으로는 고길림 전 제주시 부시장, 고송림 전 제주은행 지점장 등이 있다.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장지는 조천읍 와흘 선영. 연락처 010-3166-8003, 010-3169-8400.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독일수입] 120년의 역사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시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코박시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